

아빠가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겨울날 눈송이처럼 너를 사랑해

글 이야기꽃 | 그림 천은실





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조용히 날리는 작은 눈송이처럼 너는 엄마 배 속에 내려왔을까?
이 겨울, 아빠는 온전히 너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날마다 설레고 두근거려.

크리스마스 캐럴

겨울 햇볕이 따스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어. 기분 좋은 아침이었지. 스크루지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상쾌한 기분이었어.

크리스마스 유령들과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고 온 스크루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과 작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 왔잖아.

스크루지는 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어.

“얘야, 오늘이 며칠이니?”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아이는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말했어.

“고맙다, 애야. 정말 고마워.”

스크루지는 감격에 젖어 혼잣말을 했어.

“오, 크리스마스! 세 명의 유령을 만났지만 하룻밤이 지난 거구나. 그들은 나에게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일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

스크루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 어제와 똑같은 거리가 오늘은 새로워 보였어.

스크루지는 정육점에 가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사무실 직원인 뽕에게 배달해 달라고 했어. 뽕이 칠면조를 받고 좋아할 상상을 하니 스크루지도 기분이 좋았어.

다시 거리로 나온 스크루지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
지나는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

“영감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의 스크루지라면 대꾸도 하지 않았겠지. 오늘의 스크루지는 달랐어.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했어.

“고맙네. 자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어. 그렇게 활기찬 스크루지의 모습은 처음 보았거든.

스크루지는 거리를 걷다 낮익은 남자를 보았어. 어제저녁 사무실로 찾아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기부금을 청했던 남자였어. 스크루지는 쌀쌀맞게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지.

스크루지는 남자에게 다가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어.
남자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어.

“아니, 스크루지 씨 아니세요?”

“어제는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남자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스크루지가 그를 불러 세웠어. 스크루지는 남자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어. 그 말에 남자는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시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스크루지는 남자와 헤어지고 교회에 들러 기도했어.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정겹게 인사했어. 거리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가득했어.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을 찾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가도 괜찮겠니?”

조카는 깜짝 놀라서 스크루지를 끌어안았어.

“어서 들어오세요. 삼촌 덕분에 멋진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조카가 반겨 주자 스크루지는 걱정을 놓았어. 그동안 조카를 돌보지도 않고 열심히 돈만 모았는데, 그런 자신을 이토록 반겨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어.

조카 부부는 소담한 식탁을 차리고 촛불에 불을 밝혔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저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였지. 하지만 스크루지에게는 난생처음 맞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어.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와 선물 상자, 알록달록 꾸며진
집과 사랑하는 조카 가족들, 그리고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 모든 것이 스크루지를 행복하게 해 주었어.

스크루지는 자신이 느낀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몇 번이고 인사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줄 널 위해,
작은 양말 하나를 크리스마스트리에 걸어 둘게.





눈 내리는 소리

엄마랑 아빠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네가 어떤 기분인지,
무얼 하다 사진에 찍혔는지 이야기를 나누곤 해.
지금은 귀를 쫑긋, 아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

눈 노래

눈이 온다 펄펄

함박눈이 힘빡

싸라눈이 싸룩싸룩

진눈깨비 질척질척

떡 쌀가루 쏟아진다

떡 해 먹자 백설기떡

흰떡 가래떡

시루떡 인절미

막떡 버무리떡

한마당 두 마당에

자꾸자꾸 쌓이거라.

눈사람도 떡으로 짓고
집도 절도 떡으로 지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돌려먹고 나눠 먹고
두고 먹고 구워 먹고
혼자 먹고 같이 먹고
앉아서 먹고
서서 먹고
누워서 먹고
자면서 먹고
깨어서 먹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흰 모자를 쓰고 있다
떡가루를 둘러썼다
나무도 풀도
니도 나도
배 터져서 죽겠구나
배 터져도 좋으니라
떡 먹는 거 좋으니라
떡보야 떡보야
바보야 울보야
곰보야 찌보야
너그들도 나와서
떡 먹어라
떡 받아먹어라.

눈이 내려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눈 오는 소리를 듣겠지.

아가야, 너에게도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
아빠랑 함께 눈 노래를 불러 보겠니?

소중한 아기에게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